

#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과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준희\*·김주자\*·이경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Study on the factors of change and change aspects of the self-esteem of the workers who have experienced work-related accidents

June-Hee Lee\* · Joo-Ja Kim\* · Kyung-Jae Lee\*

\*Department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 Abstract

Analyses were performed with Rosenberg Self-esteem Scale. The population was 1,391 Korean workers in total. Subjects who get scores of self-esteem lower than those before the accidents were 539 people(42.34%). On the other hand, subjects who get the same or higher scores of self-esteem than those before the accidents were 802 people(57.66%). The average score of the whole showed 30.09 point that is higher than 29.99 points that were analyzed from primary panel data. The odds ratio of self-esteem is analyzed to find that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improving self-esteem of the workers group. The result of odds ratio analysis was 1.60 in the not-to-return-to-work group, significantly higher of the score of self-esteem than the return-to-work group.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odds ratio of unemployed workers group from the group of workers who return to work prove the academically conventional social norms. This result shows that the workers condition, whether or not they can return to their work, affects the workers ' self-esteem. Therefore, the workers' condition for returning to the work should b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service for Korean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s.

**Keywords :** Rosenberg, Self-esteem,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Panel Study

### 1. 서론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이는 자아존중감이 생활의 전반적인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으며 이는 각 개인

별로 자아존중감이 일상을 영위하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 자신의 성취에 대한 과거의 예측과 비교한 지금의 성취 수준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 된다.

†Corresponding Author : Kyung-Jae Lee, Department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Received October 20, 2016; Revision Received November 25, 2016; Accepted December 14, 2016.

Rosenberg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며 스스로를 평가하는 척도로 정의 하였고 따라서 현재도 자아존중감 척도가 많은 연구 부문에서 넓게 사용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불안감의 발현 빈도가 높고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나 문제해결 능력, 적응능력도 낮음을 보였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반영하여 주는 지표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간접적 지표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어 주는 여러 가지 점수 환산 방법 중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는 여러 가지 연구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며 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번안하여 신뢰성과 타당도를 검증하고 사용한 척도를 국내 연구에서 사용 하였다. 설문은 총 10문항 정도로 직관적으로 짧게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이고 국내의 연구에 따르면 번안된 자아 존중감 척도 측정 도구가 연구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척도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던 기존의 결과물과 2차년도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과 변화 요인에 어떤 부분이 관여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요양이 종결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2013년 8월부터 10월 까지 실시된 제1차 산재보험패널조사와 2014년 8월부터 10월 까지 시행된 2차 산재보험 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 하였다. 만성 질환이 있거나 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 산재와 관련 없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1차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상자들을 연구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며 또한 2차에서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원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1,391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 하였다.

### 2.2 연구방법

제 1차 및 2차 산재패널 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이중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 하였다. 총 2,000명의 조사대상자 중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의 기본적인 영향 요인인 만성질환이 있는 대상자나 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제외하였고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하였다. 2,000명 중 총 1,39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 하였다. 표본 추출 과정에서 임의로 대상자를 제외하였기에 가중치는 반영하지 않았다.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 문항으로 4점식 척도를 이용하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중 3번, 5번, 8번, 9번, 10번 문항은 역산 문항으로 높은 점수를 선택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게 되는 문항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준, 원직장 복귀여부, 장애 등급, 직업 경력, 요양기간을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의 점수를 분석 하였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각 군별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 및 표준편차를 제시 하였다. 또한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자아존중감이 감소한 대상자를 참고군으로 하여 각각의 일반적 특성별 오즈비를 산출 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각 군별 빈도 분석과 점수의 평균을 산출 하였고 평균점수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자아존중감이 감소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에 대하여 일반적 특성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 하였다. 통계 패키지는 SPSS 14.0을 사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자아존중감 점수 추이 분석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opulation

	Variable	Participants	
		n	(%)
Sex	men	1,168	(83.97)
	women	223	(16.03)
Age	20' s	98	( 7.05)
	30' s	230	(16.53)
	40' s	376	(27.03)
	50' s	476	(34.22)
	Over 60' s	211	(15.17)
	Education	None	51
Elementary School		194	(13.95)
Middle School		253	(18.19)
High School		661	(47.52)
Over University		232	(16.68)
Area	Seoul	173	(12.44)
	Busan	141	(10.14)
	Daegu/Kyungbuk	150	(10.78)
	Kangwon	48	( 3.45)
	Kyungnam/Ulsan	165	(11.86)
	Kyunggi	348	(25.02)
	Incheon	121	( 8.70)
	Jeolla	124	( 8.91)
	Chungcheong	121	( 8.70)
Work Duration	<1month	427	(30.70)
	1-2month	124	( 8.91)
	2-3month	75	( 5.39)
	3-4month	-	( - )
	4-5month	41	( 2.95)
	5-6month	76	( 5.46)
	6month-1year	143	(10.28)
	1-2year	132	( 9.49)
	2-3year	65	( 4.67)
	3-4year	55	( 3.95)
	4-5year	33	( 2.37)
	5-10year	102	( 7.33)
10-20year	71	( 5.10)	
Over 20years	47	( 3.38)	
Accident Type	Accident	1,268	(91.16)
	Disease	123	( 8.84)
Return to Work	Return to Work	522	(37.53)
	Outplacement	474	(34.08)
	Self-Employment	41	( 2.95)
	Family Business	6	( 0.43)
	Unemployed	99	( 7.12)
	Economically inactive	249	(17.90)
Grade of Disability	1-3	3	( 0.22)
	4-7	24	( 1.73)
	8-9	91	( 6.54)
	10-12	593	(42.63)
	13-14	419	(30.12)
No Disability	261	(18.76)	
Recuperation period	3month	241	(17.33)
	3-6month	603	(43.35)
	6-9month	330	(23.72)
	9month-1year	111	( 7.98)
	1-2year	90	( 6.47)
Over 2 years	16	( 1.15)	
Total		1,391	100.00

<Table 2> Comparison of Self-Esteem Scale score trend in 2012 and in 2013

	Variable	lower scores		same or higher scores	
		n	(%)	n	(%)
Sex	men	496	(42.47)	672	(57.53)
	women	93	(41.70)	130	(58.30)
Age	20' s	34	(34.69)	64	(65.31)
	30' s	87	(37.83)	143	(62.17)
	40' s	154	(40.96)	222	(59.04)
	50' s	218	(45.80)	258	(54.20)
	Over 60' s	96	(45.50)	115	(54.50)
	Education	None	26	(50.98)	25
Elementary School		92	(47.42)	102	(52.58)
Middle School		114	(45.06)	139	(54.94)
High School		273	(41.30)	388	(58.70)
Over University		84	(36.21)	148	(63.79)
Area	Seoul	75	(43.35)	98	(56.65)
	Busan	65	(46.10)	76	(53.90)
	Daegu/Kyungbuk	56	(37.33)	94	(62.67)
	Kangwon	22	(45.83)	26	(54.17)
	Kyungnam/Ulsan	55	(33.33)	110	(66.67)
	Kyunggi	164	(47.13)	184	(52.87)
	Incheon	36	(29.75)	85	(70.25)
	Jeolla	66	(53.23)	58	(46.77)
	Chungcheong	50	(41.32)	71	(58.68)
Work Duration	<1month	192	(44.96)	235	(55.04)
	1-2month	47	(37.90)	77	(62.10)
	2-3month	36	(48.00)	39	(52.00)
	3-4month	-	( - )	-	( - )
	4-5month	16	(39.02)	25	(60.98)
	5-6month	38	(50.00)	38	(50.00)
	6month-1year	56	(39.16)	87	(60.84)
	1-2year	56	(42.42)	76	(57.58)
	2-3year	26	(40.00)	39	(60.00)
	3-4year	22	(40.00)	33	(60.00)
	4-5year	8	(24.24)	25	(75.76)
	5-10year	45	(44.12)	57	(55.88)
10-20year	30	(42.25)	41	(57.75)	
Over 20years	17	(36.17)	30	(63.83)	
Accident Type	Accident	539	(42.51)	732	(57.73)
	Disease	53	(43.09)	70	(56.91)
Return to Work	Return to Work	208	(39.85)	314	(60.15)
	Outplacement	199	(41.98)	275	(58.02)
	Self-Employment	21	(51.22)	20	(48.78)
	Family Business	2	(33.33)	4	(66.67)
	Unemployed	51	(51.52)	48	(48.48)
	Economically inactive	108	(43.37)	141	(56.63)
Grade of Disability	1-3	3	(100.00)	0	( 0.00)
	4-7	8	(33.33)	16	(66.67)
	8-9	43	(47.25)	48	(52.75)
	10-12	244	(41.15)	349	(58.85)
	13-14	177	(42.24)	242	(57.76)
No Disability	114	(43.68)	147	(56.32)	
Recuperation period	3month	102	(42.32)	139	(57.68)
	3-6month	263	(43.62)	340	(56.38)
	6-9month	131	(39.70)	199	(60.30)
	9month-1year	46	(41.44)	65	(58.56)
	1-2year	41	(45.56)	49	(54.44)
	Over 2 years	6	(37.50)	10	(62.50)
Total		589	(42.34)	802	(57.66)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자 1,168명, 여자 223명이었으며 총 1,391명의 대상자가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1차년도에 비해 자아 존중감 점수가 하락한 대상자는 총 589명이었으며 이는 전체의 42.34%를 차지 하였다. 반면에 자아 존중감 점수가 상승하거나 같은 대상자는 총 802명으로 57.66%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5.80%로 자아존중감 점수 하락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력별로는 무학이 50.98%로 자아존중감 점수 하락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권역별로는 전라 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53.23%) 인천지역이 가장 낮았다. 직장 복귀 여부에 따라서는 실직자에서의 자아존중감 점수 하락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51.52%) 장애등급에 따라서는 1-3등급에서 3명중 전원이 자아존중감 점수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 3.2 Rosenberg 자아 존중감 척도 평균 점수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Self-Esteem Scale mean scor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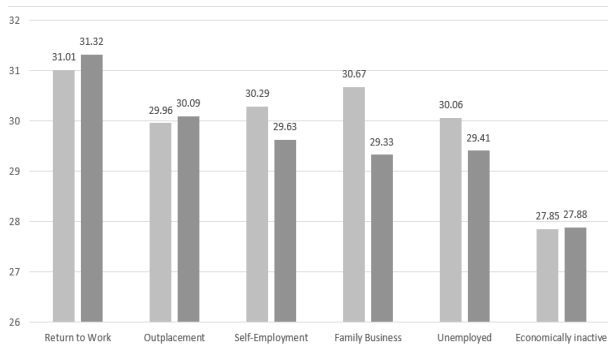
Variable	Primary		Secondary		p-value	
	Mean	Std Dev	Mean	Std Dev		
Sex	men	29.99	4.29	30.09	4.43	0.03
	women	30.00	4.26	30.09	4.18	
Age	20's	30.76	4.31	31.69	3.85	0.33
	30's	30.78	4.07	31.20	4.08	
	40's	29.78	4.49	29.99	4.60	
	50's	29.97	4.21	29.76	4.34	
	Over 60's	29.23	4.15	29.04	4.26	
	None	27.73	4.60	27.18	4.96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9.28	4.22	28.84	4.22	
	Middle School	29.68	4.32	29.72	4.37	
	High School	30.22	4.19	30.34	4.30	
	Over University	30.77	4.25	31.47	4.07	
	None	27.73	4.60	27.18	4.96	
Area	Seoul	30.49	4.07	30.87	4.39	0.46
	Busan	29.01	4.28	28.85	4.39	
	Daegu/Kyungbuk	29.19	4.30	29.31	4.54	
	Kangwon	27.52	4.92	27.50	5.67	
	Kyungnam/Ulsan	29.59	3.92	30.59	4.19	
	Kyunggi	30.45	3.86	30.03	4.00	
	Incheon	30.83	4.79	31.72	4.20	
	Jeolla	30.78	4.61	30.01	4.34	
	Chungcheong	30.02	4.43	30.34	4.28	
Work Duration	<1month	29.43	4.39	29.17	4.36	0.05
	1-2month	29.05	4.35	29.43	4.52	
	2-3month	30.27	4.48	30.36	3.88	
	3-4month	-	-	-	-	
	4-5month	29.15	5.30	29.68	4.87	
	5-6month	30.58	3.70	30.01	4.15	
	6month-1year	30.55	3.81	30.48	4.44	
	1-2year	30.18	3.95	30.35	4.14	
	2-3year	29.97	4.41	30.48	4.35	
	3-4year	30.76	4.42	31.25	4.07	
	4-5year	30.79	3.51	32.33	4.06	
	5-10year	30.72	4.62	30.76	4.51	
	10-20year	30.79	4.12	31.28	4.37	
	Over 20years	30.60	3.88	31.62	4.12	

<Table 4> Comparison of Self-Esteem Scale mean score-II

Variable	Primary		Secondary		p-value	
	Mean	Std Dev	Mean	Std Dev		
Accident Type	Accident	29.91	4.32	30.01	4.35	0.13
	Disease	30.80	3.90	30.95	4.67	
Return to Work	Return to Work	31.01	3.81	31.32	3.83	0.22
	Outplacement	29.96	4.19	30.09	4.22	
	Self-Employment	30.29	4.62	29.63	4.48	
	Family Business	30.67	6.12	29.33	5.72	
	Unemployed	30.06	4.71	29.41	4.44	
	Economically inactive	27.85	4.39	27.88	4.82	
Grade of Disability	1-3	22.00	5.20	18.33	6.03	0.33
	4-7	28.21	4.34	28.17	4.52	
	8-9	29.25	3.94	28.70	4.44	
	10-12	29.69	4.28	29.95	4.17	
	No Disability	30.85	4.31	30.72	4.71	
Recovery period	3month	30.58	4.46	30.72	4.33	0.08
	3-6month	30.43	4.04	30.32	4.23	
	6-9month	29.46	4.41	29.83	4.41	
	9month-1year	29.14	4.15	29.44	4.72	
	1-2year	28.91	4.41	28.92	4.64	
	Over 2 years	27.75	4.64	28.25	4.92	
Total	29.99	4.28	30.09	4.39		

전체의 평균점수는 1차 자료를 분석한 평균점수인 29.99점보다 상승한 30.09점을 보였다.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 1기 자료에서 29.99점이었던 점수가 30.09점으로 상승한 양상을 보였고 여자의 평균점수의 경우 30.00점에서 30.09점으로 소폭 상승한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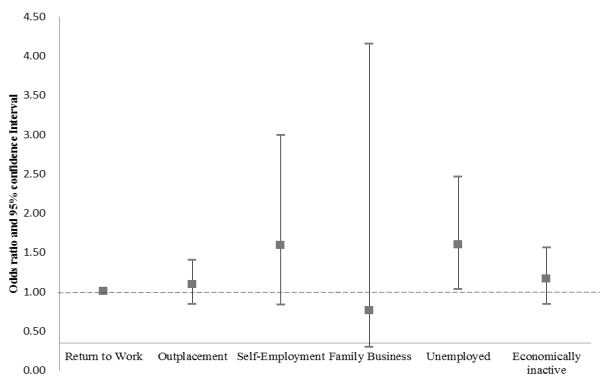
직장 복귀 여부에 따라서는 재취업 한 경우 29.96점에서 30.09점으로 평균점수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자영업주의 경우 30.29점에서 29.63점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외에도 무급 가족 종사자의 경우와 실직자의 경우에도 각각 30.67점에서 29.33점으로 30.06점에서 29.41점으로 점수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igure 1] Comparison of Self-Esteem Scale mean score by Type of Return to Work

### 3.3 자아 존중감 점수 저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오즈비 산출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오즈비를 분석하여 보았다. Table 3-2 에서와 같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서 자아존중감 점수가 감소한 대상을 점수 저하자로 분류하였고 점수저하자의 발생을 기준으로 한 오즈비를 산출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를 참고군으로 하였을 때 50대에서 오즈비 1.59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울지역을 참고군으로 하였을 때 인천 지역에서 오즈비가 0.55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직장 복귀 여부에 따라서는 원직장 복귀자를 참고군으로 하였을 때 실직자에서 1.60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Figure 2] Odds Ratio of Lower Self-Esteem Scale Score Population by Return to Work

<Table 5> Odds Ratio of Lower Self-Esteem Scale Score Population

	Variable	Odds Ratio	CI
Sex	men	1.00(ref)	-
	women	0.97	0.76-1.3
Age	20' s	1.00(ref)	-
	30' s	1.15	0.70-1.88
	40' s	1.31	0.82-2.07
	50' s	1.59	1.01-2.50*
	Over 60' s	1.57	0.96-2.58
Education	None	1.00(ref)	-
	Elementary School	0.87	0.47-1.61
	Middle School	0.79	0.43-1.44
	High School	0.68	0.38-1.20
	Over University	0.55	0.30-1.01
Area	Seoul	1.00(ref)	-
	Busan	1.12	0.72-1.75
	Daegu/Kyungbuk	0.78	0.50-1.21
	Kangwon	1.11	0.58-2.10
	Kyungnam/Ulsan	0.65	0.42-1.02
	Kyunggi	1.17	0.81-1.68
	Incheon	0.55	0.34-0.91*
	Jeolla	1.49	0.94-2.36
	Chungcheong	0.92	0.58-1.47
Work Duration	<1month	1.00(ref)	-
	1-2month	1.75	0.45-1.13
	2-3month	1.13	0.69-1.85
	3-4month	-	-
	4-5month	0.78	0.41-1.51
	5-6month	1.22	0.75-1.99
	6month-1year	0.79	0.54-1.16
	1-2year	0.90	0.61-1.34
	2-3year	0.82	0.48-1.38
	3-4year	0.82	0.46-1.44
	4-5year	0.40	0.17-0.88
5-10year	0.97	0.63-1.49	
10-20year	0.90	0.54-1.49	
Over 20years	0.69	0.37-1.29	
Accident Type	Accident	1.00(ref)	-
	Disease	1.03	0.71-1.50
Return to Work	Return to Work	1.00(ref)	-
	Outplacement	1.09	0.85-1.41
	Self-Employment	1.59	0.84-3.00
	Family Business	0.76	0.14-4.16
	Unemployed	1.60	1.04-2.47*
	Economically inactive	1.16	0.85-1.57
Grade of Disability	1-3	1.00(ref)	-
	4-7	-	-
	8-9	0.65	0.27-1.56
	10-12	1.16	0.71-1.86
	13-14	0.90	0.67-1.21
No Disability	0.94	0.69-1.29	
Recovery period	3month	1.00(ref)	-
	3-6month	1.05	0.78-1.43
	6-9month	0.90	0.64-1.26
	9month-1year	0.96	0.61-1.52
	1-2year	1.14	0.70-1.86
	Over 2 years	0.82	0.29-2.32

\* p-value < 0.05

####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요양의 종결 후에도 건강상의 이상이나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주관적 자아의 모습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회와 자아와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척도로 어려움을 반영하는 간접적 지표이다. 만성질환자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아존중감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1차 년도와 2차 년도의 자아존중감 점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자아존중감 점수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서 어떤 경우 영향을 받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먼저 전체 평균점수는 1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9.99점 이었다. 2차 자료에서는 30.09점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자아존중감이 상승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평균점수의 상승에도 점수가 감소하는 군이 있었는데 연령별로는 50대에서 평균점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력이 무학인 경우에도 1차 년도에 비해 평균점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직장복귀여부에 따라서는 산재이후 자영업을 하거나 무급가족종사자로서 가정에서 일을 돕는 경우, 실직자의 경우에서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산재이후 직장 복귀의 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변화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전반적인 사회생활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산재 발생 후 재취업이나 원직장 복귀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산재요양 이후 전반적 삶의 질을 높게 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가 된다 하겠다. 또한 오즈비를 살펴보았을 때 20대를 참고군으로 하였을 때 50대가 산재이후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대의 산재 이후 좀 더 전방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50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원직장 복귀자를 참고군으로 하였을 때 실직자에서 유의하게 높은 오즈비가 나타났다. 이는 산재이후 자아존중감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사회적응에 좋은 방향으로 본다면 특별히 산재이후 직장을 얻지 못한 실직자의 경우 재취업과 같이 다시 일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질병의 완치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개년의 산재보험패널 자료를 통하여 산재요양이후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을 통하여 산재

이후 일상적 양질의 생활을 근로자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 수립이나 연구를 해야 할 취약 계층을 선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원직장 복귀자에 비해 실직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오즈비를 산출해 낸 것은 기존의 사회적 통념을 학문적으로 증명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1차 산재보험패널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산재 치료 종결이후 직장 복귀에 대한 방침을 강화하는 것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직접적인 방안이며 산재환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5. References

- [1] Hae-Rim Choi, (1999), "Depression, domestic relationship with self, self respect persimmon of a college student." 『Psychological Association, Korea』 11(2), 183-197
- [2] Ja-Young LEE, Suk-Kyoung Nam, Mi-Kyoung Lee, Ji-hui Lee, (2009), "Rosenberg self respect persimmon of measure : Question the analysis of valid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Korea』 21(1) 173-189
- [3] Magill, F. N. (1996),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sychology. Fitzroy Dearborn
- [4] Ju-Ri LEE, (2008), "Internalizing problem and adolescents' child-rearing attitudes of parents a single-parent household in relation to emotional control and Effectiveness Verification of a vehicle of a sense." 『Children's Society』 29(3), 115-125
- [5] Mi-Rae Choi, In-Hae Lee, (2003) "Self respect persimmon of arbitration and Th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Association, Korea』 22(2), 363-383
- [6]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7] Beck, A. T., Young, J. (1979) "Handbook of studies on depress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2(2), 167, 719
- [8]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Basic process in helping

- relationships New York: Academic Press 4-5, 96-117
- [9] Eun-Jeung Namgoong, Ju-Ri Han, Kyoung Heo, (2003), "The efficacy of conflict of a college student, perfectionism and self respect persimmon with communication skills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of differences." 『Youth Research』 15(1), 357-380
- [10] Eun-Jeung Kim, (2006), "The initial on their adolescent self respect persimmon of domestic social capital A Study on the role and characteristics" 『Family and culture』 18(3), 33-61
- [11] Bo-Ga Choi, Gui-Yeon Jeon, (199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ense of self-esteem scale." 『The Home Journal, Korea』 31(2), 41-54
- [12] Sang-Eun OH, (1999), "A Study on the child's body image and self-esteem of chronic diseases." 『The Mother and Child Health South Korea Society』
- [13] Myoung-Ja Kim, Kyoung-Ae Song, (1990), "Erosio its impact o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 Korea Research Found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14] Sang-Jin Lee, (2011), "Disabled by industrial disaster our country A back-to-work policies." A Study on the rehabilitation』 20(3) 1-34
- [15] Ji-Won Kim. (2013), "Impact Analysis of the Rehabilitation of Person with Disabilities with employment policy performance.", Seoul University
- [16] Jeon-Ja Jeong, Young-Hui Kim, (1996) "A Comparative Study on with self respect persimmon and improve the health of the adult lifestyle, perceived health sta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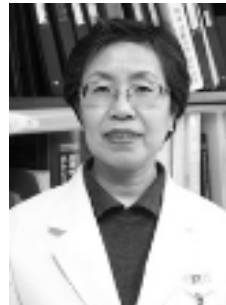
## 저 자 소개

### 이 준 희



연세대학교 석사 취득.  
현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재직중.  
관심분야 : 직업환경의학

### 김 주 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취득 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취득.  
현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재직중.  
관심분야 : 직업환경의학, 직업병학

### 이 경 재



카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취득 후, 동 대학원 의학박사 취득.  
현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재직중.  
관심분야 : 질병역학, 건강증진